# 여름철 건강 사수…순천시, 세대별 맞춤 돌봄 체계 가동

## 독거노인·재가암환자 5600가구 전담 간호사 가정방문 서비스
## 치매 어르신 400가구 건강꾸러미…보건지소 등 무더위쉼터 운영

순천시가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 계절성 감염병 등 복합적인 건강위험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안전 대응체계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시는 건강 취약계층 보호는 물론, 감염병 예방과 식품위생 관리, 아동·청소년 건강 지원 등 전방위적인 보건대응 체계를 강화해 시민 건강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순천시는 독거노인, 재가암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 약 5600가구를 대상으로 전담 간호사를 배치해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폭염에 따른 이상 증세 확인과 건강상담, 안부 전화 등을 실시하며,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돌봄을 실현 중이다.

아울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어르신 400가구에 영양식과 냉감이불로 구성된 건강꾸러미를 전달하고 있으며, 일부 열악한 가정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한 민관 협력체계를 통해 추가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의 폭염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밀착형 보호체계도 강화됐다.

시는 관내 보건지소 9개소와 보건진료소 22개소를 중심으로 무더위쉼터를 운영, 고령층이 안전하게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동시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는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를 통해 고령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폭염 대응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진료소에서는 '우리동네 건강충전소' 프로그램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와 여름철 건강교육을 통합 제공, 주민 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계절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는 침수 지역과 위생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방역을 강화하고, 어패류 취급업소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환경수계 검사를 통해 감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또한 집단생활시설에서 위장관 증상이 2인 이상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 체계를 안내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는 손 씻기, 안전한 물과 음식 섭취 등 기초 위생수칙 준수를 마을방송, SNS 등을 통해 지속 홍보하고 있다.

식중독 사고 예방과 친절 서비스 확산을 위한 식품위생 종합대책도 시행 중이다.

시는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시설 113개소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 교육을 통해 위생습관 형성 및 식생활 지도를 진행하고 있으며, 식중독 고위험 업소 150곳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예방 진단 컨설팅도 병행해 업소의 자발적인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여름철은 다양한 건강위협이 동시에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건강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촘촘한 대응을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순천시치매안심센터 관계자가 치매어르신 가정에 영양식 등 건강꾸러미를 전달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RE100 산단' 지정 총력

## 특별법 등 연내 마련 계획…태양광·해상풍력 발전 활용 검토

고흥군이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를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RE100 산업단지는 탄소중립과 친환경 전력 전환이 세계적 흐름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역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입주기업의 RE100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는 정부의 국정과제다.

정부는 지난 7월 RE100 산단 지원을 위해 전기요금 인하, 규제 완화 등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과 특별법안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고흥군은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을 RE100 산단으로 지정받기 위해 다양한 전력 공급 방식을 검토 중이며, 우선 지역에 구축된 태양광 발전 활용과 함께 해상풍력 발전 활용도 병행 검토하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드시 RE100 산단에 지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흥군 봉래면에 조성 중인 약 152만㎡ 규모의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6월 예타 면제를 받았으며, 올해 6월 LH가 국토부에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하며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거점으로서, 향후 우주산업 클러스터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 영화 보듯 기초질서 홍보 영상 시청

## 전남기동순찰대, 광양LF아울렛 CGV 멀티스크린 활용 홍보

전남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기동순찰대)는 공공장소에서의 기초질서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 광양LF아울렛 내 CGV영화관의 멀티스크린을 활용한 홍보 영상을 상영하여 시민의식 제고에 나선다.

이번 캠페인은 ▲무단횡단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전단지 배포 등 일상생활 속 공공질서 수칙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홍보 영상은 연평균 약 800만명의 이용객이 방문하는 광양LF아울렛(cgv영화관 로비)에 설치된 대형 멀티스크린을 통해 8월 한 달간 상영된다. 특히 관람객의 시선이 집중되는 예고편 상영 전 시간대를 활용해 일 평균 100회 이상 반복 상영을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전남청은 이번 홍보를 통해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시민 스스로 질서를 지키는 성숙한 사회문화 정착을 기대하고 있다.

박현용 기동순찰대장은 "기초질서는 도시의 품격을 나타내는 척도"라며 "영화관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동순찰대는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기업 및 문화 공간과의 협업을 통해 공공질서 관련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전남기동순찰대가 CGV영화관의 멀티스크린을 활용한 공공질서 캠페인 홍보 영상을 상영하여 시민의식 제고에 나선다.

# '희망에너지교실' 16년째 그 감동 그대로

## 여수 GS칼텍스 예울마루 소극장
## 아동센터 아동·청소년 50여명 참여
## 4주간 무용 창작 교육 결과 발표

여수시가 지난 9일 GS칼텍스 예울마루 소극장에서 여수지역아동센터연합회 주최·GS칼텍스 후원의 '2025년 희망에너지 교실'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정기명 여수시장을 비롯해 조계원·주철현 국회의원, 백인숙 여수시의회 의장,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 GS칼텍스 김기응 SHE 대외협력실장, 예울마루 박필규 관장, 여수지역아동센터연합회 관계자와 아동·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GS칼텍스 희망에너지 교실'은 2010년부터 진행해 온 지역공헌 프로그램으로 여수 지역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왔다. 2023년부터는 예울마루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문화예술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의 예술 콘텐츠를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해 아동·청소년 50여 명에게 4주간 무용 창작 교육을 진행했다. 전문 강사진과 함께 안무를 완성하고 공연 의상을 직접 제작하는 등 창작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날 발표회는 앰비규어스댄스컴퍼니 무용수들의 공연을 시작으로 참가 아동들이 직접 만든 안무와 의상으로 무대에 올라 그간 준비한 무대를 발표했다.

정기명 시장은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해 꾸준히 지원해 주신 GS칼텍스에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재능과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여수시가 지난 9일 개최한 '2025년 희망에너지 교실'에 참여한 아동과 청소년 50여명이 무용 창작 교육을 받고 있다.

# 구례 '압화' 그 특별한 아름다움

## 전남도청서 이달말까지 특별전

구례군이 오는 31일까지 전남도청 1층 윤선도 홀에서 '한국압화박물관 소장품 압화 특별전시'를 개최한다. 〈사진〉

이번 전시는 압화 예술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구례군 한국압화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압화는 식물의 꽃과 잎 등을 눌러 말린 뒤 예술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기법으로, 자연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담아낸다.

전시에는 역대 대한민국압화대전 수상작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압화의 예술성과 다양성을 한눈에 감상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8월 28일에는 압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 전라남도청을 찾는 도민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선사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이번 전시가 압화 예술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

# 곡성에서 한 달 여행

## 25일까지 선착순 10명 경비 지원

곡성군이 전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전남 한 달 여행하기 - 곡성편' 참가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참가자는 숙박비, 식비, 체험비 등 실질적인 여행 경비를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모집 인원은 총 10명이며,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신청자 중 개인 SNS를 통해 곡성의 관광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인플루언서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여행 기간은 8월부터 11월 사이 7~10일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곡성군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전체 일정의 절반 이상을 곡성에서 진행해야 한다.

여행 종료 후에는 '남도여행길잡이' 누리집에 여행 후기를 작성하고, SNS에 관련 콘텐츠를 게시하는 등 필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참가 신청은 곡성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lady5112@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kwangju.co.kr

# 광양시 플랜트건설노조 임금협상 타결

광양시가 지난 11일 관내 플랜트건설노조와 광양제철산업단지전문건설인협의회 간 2025년 임금협상이 무분규로 원만히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전 직종 근로자의 6500원 임금인상안이 포함됐다.

조인식은 플랜트건설노조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사무실에서 열렸으며,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이주안 위원장, 전국플랜트건설노조전동경서지부 안영일 지부장, 광양제철산업단지전문건설인협의회 안영일 회장, 김주현 부회장 등 노사 양측 주요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무분규 타결의 성과를 공유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보성군, 교육발전 포럼 앞두고 특강

보성군이 지난 5일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방향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핵심 특강인 '보성사회, 보성사람들의 길 찾기'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오는 9월 열리는 '제4회 보성교육발전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마련됐으며, 새길교육문화 사회적협동조합 주관으로, 곡성미래교육재단 허성균 상임이사를 초청해 진행됐다.

강연 후 진행된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참여해 제안된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공동의 교육 비전 수립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안들이 도출됐다.

군은 이번 특강을 계기로 교육 주체 간 소통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향후 교육 실습 프로그램, 간담회, 최종 포럼 본행사 등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정책 과제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